

“청년 52% 부모 집에 얹혀산다”

대선 우편투표 무효표 급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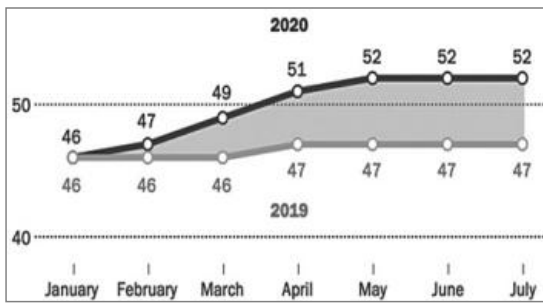
미국 청년 52%가 부모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A majority of young adults in the U.S. live with their parent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Great Depression’ 라는 제목의 인구조사국 자료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기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18~29세)은 전체의 52%, 약 2,6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47% 보다 260만 명 증가했으며, 대공황 말기인 1940년 당시 48%보다 큰 규모다.

퓨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서 “경제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1930년대 수치는 더 높았을 지 모르겠지만 그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다.” 라고 밝혔다.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18~24세 사이 증가세가 가장 뚜렷했다. 늘어난 260만 명 중 210만 명이 이 나이대다. 18~24세 사이만 놓고 보면 부모집에 얹혀사는 비율은 2월 63%에서 7월 71%로 증가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 연령대에서 인종적, 민족적 격차가 좁혀졌다는 사실이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크게 증가했다. 자료=퓨리서치센터(pewresearch.org)

보고서는 “과거 수십 년간 백인 청년이 부모 집에 얹혀살 확률은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계 보다 훨씬 적었다. 하지만 이런 격차는 지난 2월 이후 현격히 좁혀졌다.” 라고 지적했다.

주원인은 역시 코로나19다. 9%는 코로나 19 때문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부모 집에 들어갔으며, 23%는 학교와 기숙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귀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는 실직 등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경제전문가 세릴 영은 “최근 1년간 약 300만 명이 부모나 조부모 집으로 이사했다. 과거보다 9% 증가한 수치”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향한 사람 대부분이 18~25세 사이 Z세대” 라고 덧붙였다. 평소라면 도시로 나갔을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넓은 집으로 옮기는 가정이 늘면서 임대 매물이 줄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연방정부 부 오는 11월 대선 때 무효로 처리되는 우편투표가 급증해 경합주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우편투표가 크게 증가하지만 우편물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해 우편투표에 참여하고도 유효표가 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7일 올해 대선 때 핵심 경합주에서 무효로 처리되는 우편투표 참여자 수가 직전인 2016년 대선 때보다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등 7개 격전지에서 18만5천 명에서 29만2천 명의 우편투표 무효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6년 대선 때 8만7천표보다 최대 3배 이상 수준이다.

AP에 따르면 22개 주가 직전 대선 때 우편투표 비율이 10%에도 못미쳤지만 올해의 경우 거의 절반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효표는 우편물이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유권자가 우편투표 서류에 제대로 서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문제는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는 경합주의 경우 무효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펜실베이니아주는 올해 4만3천

명의 우편투표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이곳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4만4천여표 차이로 이겼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2만3천표가량 이긴 위스콘신주 역시 우편투표 무효표가 승부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우편투표 무효표의 급증은 우편투표에 적극적인 지지층이 많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AP는 “민주당 유권자가 집중돼 있고 올해 당내 경선 때 무효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던 일부 도시 지역에서 이 문제는 훨씬 더 뚜렷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당내 경선 때 우편투표 무효 비율이 14%였지만, 이 주의 대도시인 필라델피아의 경우 이 비율이 3.9%로 더 높았다.

AP는 “대량의 무효표는 선거에 관한 의구심을 심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조지아주에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1천여 명이 중복 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편 투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복 투표자들은 부재자 투표를 한 뒤 다시 현장 투표에도 참여했으며 이런 사례는 조지아의 100개 카운티에 걸쳐서 발생했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9월 14일 ~ 9월 20일, 2020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남자 길일 : 14, 15, 18, 19</p>	<p>여자 길일 : 16, 17, 20</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쥐</p> </div> <p>얼어붙은 땅 위에서 새싹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때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희망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움직이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좋은 협력자를 구해야 합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말</p> </div> <p>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실력을 배양하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재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듯이, 주어진 상황과 때에 따라서 행동하면 좋습니다.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아켜보아야 합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소</p> </div> <p>마른 나무에 단비가 내리는 격입니다. 정성으로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행동하면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정신적인 교분을 항상 두텁게 하고 아랫사람의 뜻을 잘 포용하여야 합니다. 혹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양</p> </div> <p>지금은 일을 급하게 서두르면 이롭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력을 쌓고서 좋은 때를 기다리면, 곧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확장하면 힘이 들 때입니다. 하던 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범</p> </div> <p>왕성한 의욕으로 일을 확장하게 되더라도 경솔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끔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천중이 천리 밖까지 울리지만 소리만 있고 형체는 없듯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남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일을 벌이면 실패가 따를 것입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원숭이</p> </div> <p>산 위에서 나무가 조금씩 자라듯이 점진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모하고 경솔하게 일을 진행하면 좋지 못합니다.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뜻 사람들의 선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끈고 바르게 가져야 이롭습니다. 사업도 순서와 절차에 따라 거래를 해야 유리합니다. 자급이나, 인력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토끼</p> </div> <p>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실력을 기르면서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지면 저절로 복록이 따를 것입니다. 중용을 지키면 작은 일은 뜻대로 행통할 것입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닭</p> </div> <p>운수가 대길하니 뜻하는 일을 순조롭게 이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결이 잘되므로, 새로운 계획에 착수하여도 순풍에 돛단 듯 어려움 없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면 교만과 나태에 빠지기 쉬우니,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위아래의 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군자의 덕을 쌓는 사람은 득세하겠지만, 소인이라면 몰락합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용</p> </div> <p>추운 겨울 뒤에는 훈훈한 봄이 오듯 나쁜 시기는 오래가지 않는 법입니다. 종교나 학문, 연구 분야에 몰두하면 스스로의 능력을 좋은 면으로 발전,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구설수가 두렵습니다. 넓은 덕을 베풀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때를 맞추어 일을 한다면 나아가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개</p> </div> <p>대지는 모든 것을 제한 없이 싣고 키우는 덕을 갖고 있듯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조용히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더 길합니다. 또한 땅이 만물을 포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끈게 가지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돼지</p> </div> <p>확실한 전망을 세우기가 곤란하므로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계몽을 받아야 하듯이, 훌륭한 선배나 위사람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하겠습니까. 위사람이나 선배의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섭과 거래는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돼지</p> </div> <p>가운 대지에 곧 비가 내리는 격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이면 소문만 크게 나고 실속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안정을 취하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 금전△ 애정○ 건강○</p>